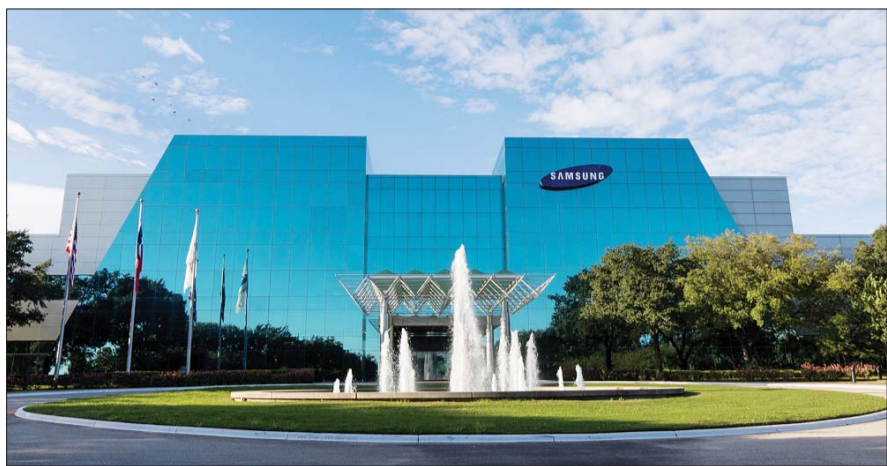


美·中 사이에 낀 '반도체코리아'... 아슬아슬 줄타기 신세

삼성전자·TSMC 美 공장에 美 정부, 현지생산 확대 촉구
삼성 오스틴공장 증설 압박도
中, 스마트폰 시장 입지 좁아져
韓, 메모리반도체 반사의 기대
소비침체 등에 실적악화 예상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 뉴스룸

코로나19에도 꺾였던 '반도체 코리아'가 미·중간 갈등으로 또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지만 시장 위축 등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다만 TSMC와 삼성전자에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2차전이 발발한 것. 앞서 미국 상무부는 오는 9월부터 자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에게 판매하지 말라며 제재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TSMC는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고, 차세대 파운드리 팹을 미국

현지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TSMC의 화웨이 매출 비중은 15% 안팎으로, 그 밖에는 AMD와 엔비디아 등 대부분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SMC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미국이 주요 반도체 업체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당장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팹인 오스틴 공장을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도 오스틴 공장 증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내용이 알려진 직후 중국 출장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지만, 귀국 길에서 받은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단,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 추가

로 투자를 진행해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스틴 공장은 여전히 14나노 수준 파운드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2014년 당시 애플의 AP를 수주하면서 세계 최초로 14나노 핀펫 공정을 도입했지만, 이후 애플 물량 수주에 실패하는 등 정체된 상태였다.

경쟁 상대인 TSMC에 대응해 다시 첨단 공정을 도입하고 다시 한 번 애플 등 현지 주요 팹리스사 공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오스틴 공장 증설시 경제적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오히려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가 빈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관련주들이

파르게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뿐 아니라 협력사들까지 최근 며칠간 5% 이상 강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문제는 화웨이이다. 중국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현실화된다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가 지난해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장 침체도 악재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벌써부터 미중무역분쟁 우려에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무역분쟁이 현실화한다면 장기 불황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중국은 최근 현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22억 5000만달러(약 3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선 조치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반도체 투자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대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 위원장. /손진영 기자 son@

1조 범위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도입

>> 1면 '3.5조 추경, 55만...'서 계속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라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필요 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SPV 설립에 대해 "채권 시장안정펀드 설립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

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며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산업은행이 1조원을 SPV에 출자하고 1조원의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국은행이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해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교 3학년이 등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처럼 완전 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

터널·지하에서 끊임없이 GPS 신호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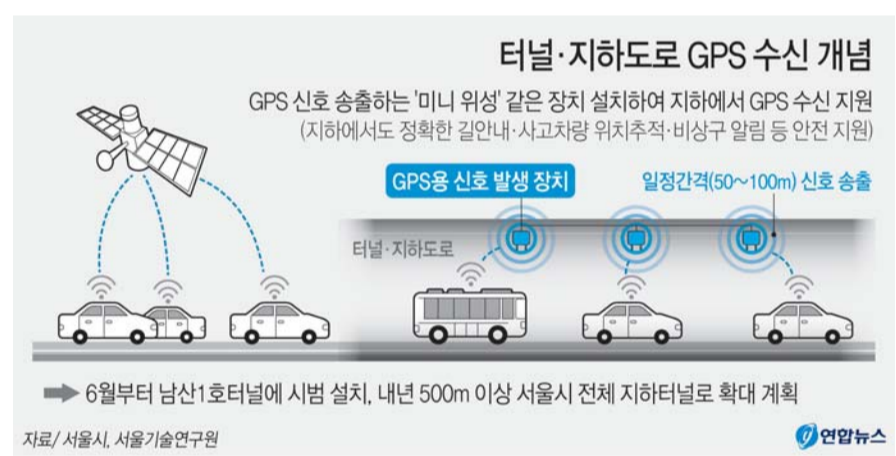
서울시-서울기술연구원
지하에 GPS용 신호발생장치 설치
내달 남산1호터널에 설치·기술검증
SKT와 T맵 활용 차량위치 등 확인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6월 지하도로, 터널 등에서도 GPS(위치정보 시스템) 신호가 끊기지 않는 기술을 남산1호터널 등에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GPS는 위성 신호를 바탕으로 사용자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라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시와 연구원은 터널 등 지하 공간에 GPS용 신호 발생 장치를 설치해 지하에서도 GPS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위성에서 나오는 GPS 신호처럼 스마트폰에 인식되므로, 이용자는 별도 장치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남산1호터널(연장 약 1.53km)에 GPS용 신호 발생 장치 10개를 설치하고 기술 검증에 들어간



다. 시는 SK텔레콤과 함께 T맵을 활용해 차량위치 추적 정확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GPS용 신호를 이용해 더 정확하게 버스도착시간을 예측하는 기술을 테스트한다.

서울시, 서울기술연구원, SK텔레콤은 연내 T맵 등 민간 내비게이션 등에 이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남산1호터널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도로인 강남순환로 등 길이 500m 이상의

지하터널에서 GPS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지문·북악·정릉 등 총 20개 터널 약 29.8km 구간에 GPS용 신호 발생 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동부간선지하도로 등 모든 지하도로에 이 GPS 음영 해소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용되는 기술은 한국뉴욕주립대 류지훈 교수와 네오스텍 컨소시엄의 'SDR 기반 GPS 신호생성을 통한 GPS 음영 해소 기술'이다. /김현정 기자 hjk@

인천 고3 2명 확진에 66곳 전체 귀가

>> 1면 '발열검사 후 침묵 속...'서 계속

경복고는 자가진단을 통해 등교 중지 조치가 된 사례는 없었지만, 학생 1명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았다. 교육부 지침상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NEIS)를 통한 자간 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이경률 교장은 "등교 전 자가진단 문진표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10~20% 정도 돼 오늘 아침에 또 안내했다"면서 "우리 학교는 1000명 이상 과대학교가 아니어서 보건 교사가 1명인데 7~8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2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지역에서는 고3 코

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지역 학생 전체 귀가 및 등교 중지 조치가 잇따르며 우려를 자아냈다. 인천에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등 5개 자치구 내 고등학교 66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했다. 이는 인천 전체 고등학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도 안성에서도 해당 지역 확진자 동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9개 고교의 등교가 중지됐다.

/이현진 기자 lhj@